토 론

중부지역의 청동기시대 조기-전기문화 편년에 대한 토론문

이 형 원
한신대학교박물관

토론자의 임무는 중부지역의 청동기시대 조기-전기문화를 편년한 3개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3명의 발표자는 서울·경기지역(강병학)과 강원영서지역(김권중), 강원영동지역(박영구)의 조기-전기문화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토기상을 비롯하여 석기상, 주거구조의 변천 양상, 그리고 절대연대측정결과를 활용하여 단계설정과 시기구분을 시도하였다. 우선, 중부지역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역별 병행관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을 생산해 낸 발표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토론은 모두 공통질문 형식을 취한다

〈표 1〉 발표문에 의한 지역권별 조기-전기 병행관계 (토기 발췌, 석검 부가)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서울경기지역
(강병학)</th><th colspan="4">강원영서지역
(김권중)</th><th colspan="2" rowspan="2">강원영동지역
(박영구)</th></tr>
<tr><th colspan="2">북한강유역</th><th colspan="2">남한강유역</th></tr>
<tr><td rowspan="2">조기전반
(Ⅰ-1)
3100BP하한</td><td rowspan="2">즐문토기적요소
돌대문토기단독기
(돌대이격,돌대연접)</td><td rowspan="2">조기
전반</td><td>Ⅰ</td><td>돌대문계
※석검</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3">조기
(Ⅰ)</td><td rowspan="3">이중구연토기
공렬토기</td></tr>
<tr><td colspan="2">3100BP하한</td></tr>
<tr><td rowspan="2">조기후반
(Ⅰ-2)
3100-2950BP</td><td rowspan="2">돌대문토기(돌대연접)
절상돌대문토기
류상파수형토기
이중구연토기 출현
※석검</td><td rowspan="2">조기
후반</td><td>Ⅱ</td><td>돌대문계
이중구연계</td><td>Ⅰ</td><td>돌대문계
이중구연계
공렬문계</td></tr>
<tr><td colspan="2">3100-2950BP</td><td colspan="2">3000-2900BP</td><td colspan="2">2960BP하한</td></tr>
<tr><td rowspan="2">전기전반
(Ⅱ)
3000-2850BP</td><td rowspan="2">팽이형토기
가락동식토기 성행기
흔암리식토기 출현
공렬,구순각목문 출현</td><td rowspan="2">전기
전반</td><td>Ⅲ</td><td>이중구연계
공렬문계
복합문계
(돌대문,공렬,구순각목,이중구연)</td><td>Ⅱ</td><td>공렬문계</td><td>전기
전반
(Ⅱ)</td><td>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공렬
공렬
※석검</td></tr>
<tr><td colspan="2">2950-2800BP</td><td colspan="2">2900-2800BP</td><td colspan="2">2960-2880BP</td></tr>
<tr><td rowspan="2">전기중반(Ⅲ)
2900-2750BP</td><td rowspan="2">가락동식토기 쇠퇴기
흔암리식토기 성행기
구순각목+공렬토기다수
퇴화이중구연화 진행</td><td rowspan="3">전기
후반</td><td>Ⅳ</td><td>공렬문계</td><td>Ⅲ</td><td>공렬문계</td><td>전기
중반
(Ⅲ)</td><td>이중구연공렬
공렬</td></tr>
<tr><td colspan="2">2880-2790BP</td></tr>
<tr><td>전기후반(Ⅳ)
2850-2700BP</td><td>역삼동식토기 성행기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공렬중심
퇴화이중구연화일부지속</td><td colspan="2">2800-2700BP</td><td colspan="2">2800-2650BP</td><td>전기
후반
(Ⅳ)</td><td>공렬토기</td></tr>
<tr><td colspan="6"></td><td colspan="2">2790-2650BP</td></tr>
</table>

1. 편년방법에 대해서

중부지역, 나아가 남한이나 한반도 전역에 대한 광역편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지역단위의 안정적인 편년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또한 고고학자가 편년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대연대결정법과 절대연대결정법을 사용하는데, 발표자들은 이번 편년 연구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기구분이나 단계 설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밝혀주기 바란다.

2. 조기-전기의 구분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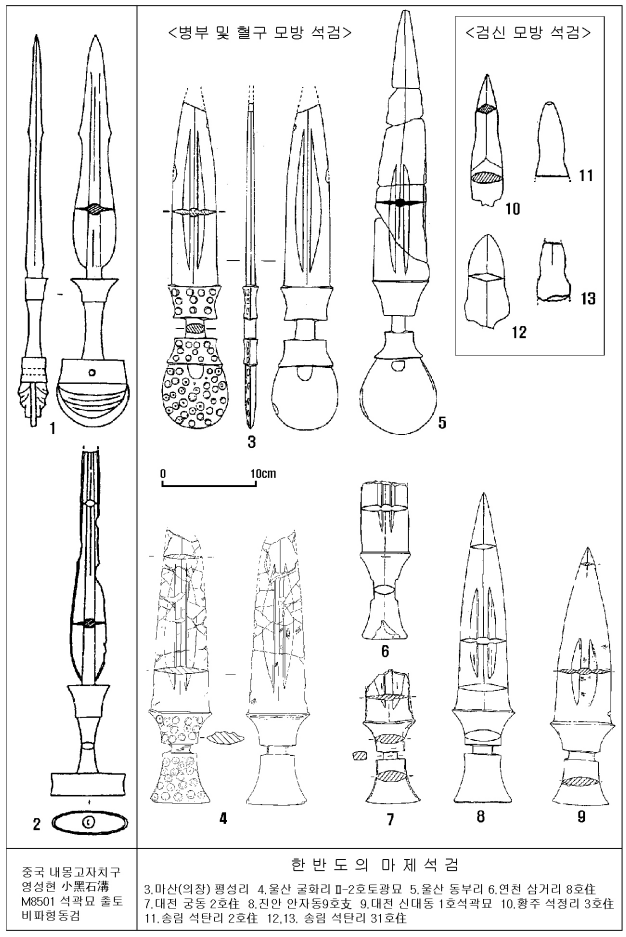
현재 학계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 대해서 1980년대 중반까지 사용된 전기-후기(점토대토기)의 2분기안을 제외하면, ①전기-중기(송국리)-후기(원형점토대토기)로 나누는 3분기안과 여기에 조기를 더한 ②4분기안(안재호2000), 그리고 ③조기-전기-후기(송국리)의 신3분기안(안재호2006), 가장 최근에는 ④조기-전기-중기(기존의 전기후반)-후기(송국리)의 신4분기안(배진성2011)까지 제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3명의 발표자들은 조기-전기-중기(송국리)-후기(점토대토기)의 4분기안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4분기안은 기존의 전기-중기(송국리)-후기 편년에서 전기에 앞서는 시기로 파악한 미사리유적과 대평리유적의 일부 양상, 즉 즐문토기적 전통을 간직한 신석기문화에서 농경을 기반으로 한 청동기시대로 진입하는 과도기 또는 전환기를 의미하는 '조기'가 주창된 것인데, 발표자들은 조기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조기와 전기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기 바란다.

3. 마제석검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위 2번 질문과도 관련된 내용이다. 토론자는 조기와 전기의 구분에 대해서 전기는 이른 시기 비파형동검문화권의 외연지대인 한반도에서 동검이나 동촉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혈구이단병식마제석검과 이단경식석촉의 출현을 중시하고 있다(도면1). 또한 석검이 등장하는 시기는 남한 내 가락동식토기의 이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사리유형을

주체로 하는 시기를 조기로 보는 것인데, 이는 조기와 전기를 문화사적인 구분에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두 발표자가 조기전반(김권중-홍천 외삼포리5호), 또는 조기후반(강병학-가평 연하리1호·13호)으로 편년하고 있는 유적들을 토론자는 전기로 구분하고 있다(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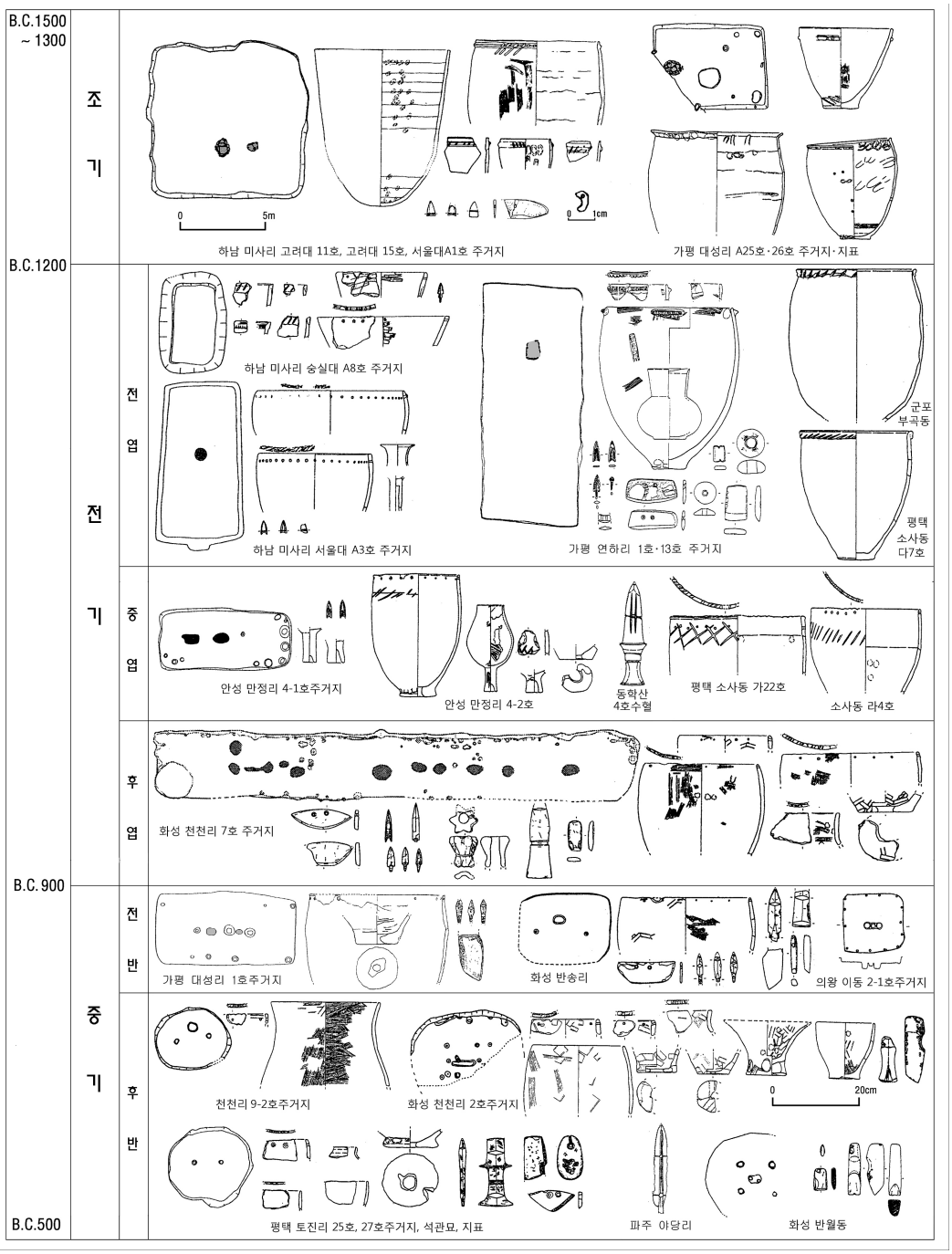


〈도면 1〉 청동기시대 전기의 마제석검과 이와 관련된 중국 동북 지역의 비파형동검(이형원2006)

그런데 여기에서 풀어야할 과제가 생겼다. 가장 이른 시기의 마제석검이 출토된 홍천 외삼포리나 가평 연하리유적, 그리고 대전 궁동유적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BC1200년을 전후한 연대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 요서지역 비파형동검의 연대를 넓게 볼 때 BC900-700년 경으로 비정하는 연대와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중원의 청동예기를 분석하여 소흑석구나 남산근의 비파형동검은 BC8세기 중엽을 상회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김정렬 2011). 물론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을 더 이른 시기로 보는 견해도 참고해야겠지만, 요령지역 비파형동검의 제작 개시 시기는 대체적으로 BC9-8세기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절대연대측정치를 토대로 시기비정을 행하고 있는 요즘의 연구경향 속에서 나온 대안은 비파형동검과 마제석검의 기원을 植刃式骨劍에서 찾는 것(春成秀爾2006)이다. 안재호(2009)도 이를 「요령식동검 식인식단검조형설과 요동지역 발생설」, 그리고 「한반도 마제석검 식인식단검조형설」로 부르며 동조하면서 석검의 출현을 BC11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발표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토론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지만, 연구가 부족해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학계에서 무관심으로 일관



〈도면2〉 비교자료 :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조기-중기 편년(이형원 2010)

하거나 회피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연대를 더욱 정치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절대연대측정결과와 그것의 올바른 해석(안승모

2012), 그리고 이와 더불어 중국 동북지역에서 중원의 청동예기와 공반된 비파형동검의 연대를 밝히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의 활용에 대하여

일본의 역사민속박물관이 10여년 전부터 야요이문화의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토기에 탄착된 유기물을 대상으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를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안승모(2012)에 의해 탄화종자를 이용한 훌륭한 연구성과가 발표된 바 있다. 古木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임은 주지하는 사실인데, 발표자들이 제시한 절대연대측정치 가운데 고목효과가 의심되어 상향된 연대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참고로 안승모가 제시한 자료 중 중부지역으로 한정한다면, 가평 연하리1호주거지 탄화기장 3090±40BP, 강릉 교동1호주거지 탄화미 3040±60BP, 탄화미2860±20BP(목탄 3390±60)가 참고가 된다. 이 밖에 하남미사리 고려대 11호주거지 출토 환저토기(내부바닥 탄착유기물) 3360±40BP, 평택 당현리II-1호주거지 탄화미 2720±20(목탄 2825±20),당현리II-2호주거지 탄화콩 2730±20(목탄 2710±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탄화곡물과 목탄은 서로 비슷한 연대가 나오거나 고목효과의 영향으로 목탄이 더 오래된 연대치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대측정 기관별로 그 결과가 상이한 현상도 주목하면서 절대연대측정결과는 반드시 고고학적인 정황과 연계해서 활용해야만 한다는 견해(이창희 2008 · 2011; 안승모 2012)에 적극 동감한다.

〈충청 북서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 나건주〉, 〈충청 남동지역의 조기~전기 편년 - 공민규〉 토론문

허 의 행
한국고고환경연구소

나건주, 공민규 선생님은 호서지역의 이서와 이동의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 두 지역의 문화상 접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두 분의 편년안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금번의 논고는 기존의 편년안에 새로운 자료를 다량 추가하고, 주거간의 중복관계를 통한 유물의 시간적 순서를 보다 정치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분 선생님의 전반적인 편년안의 큰 틀에서는 저 또한 동의하는 바여서 연구 방법론에서의 구체적인 토론을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관점에서는 방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논고를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써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동질의〉

1. 먼저 취락유형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건주 선생님께서는 역삼동·흔암리유형으로 취락유형을 설정하시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계신데, 역삼동과 흔암리유형을 동일문화의 전통을 가진 주체로 보시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시간적 흐름(역삼동 선, 흔암리 후 또는 흔암리 선 역삼동 후)에 따라 나타난 취락유형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충청 북서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으로 보시는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공민규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호서지역에서도 그 발견 예가 증가하는 돌대문토기 관련 유적을 근거로 미사리유형에 대한 새로운 편년안을 제시하시고 계신데, 마지막 장에서 정리를 하셨지만 호서지역에서의 미사리유형의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 듯 합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여 다른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두 선생님 모두 금번 논고에서 편년의 주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이 주거지간의 중복으로 보시는 듯 하지만, 나건주 선생님께서는 중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편년안에

이용한 반면, 공민규 선생님께서는 중복사례의 적극적 활용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인 편년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편년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거지의 중복사례를 통한 토기 및 석기의 변화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 부족하고 절대연대상으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작은 시간차는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시간적 변화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건주 선생님〉

1. 나건주 선생님께서는 구연의 형태와 문양 시문을 바탕으로 4기로 구분하고 계시는데 변화의 큰 틀은 토론자 또한 동의합니다. 다만 마지막 4기의 취락 예가 빠져 있어 언급을 드리는 건데, 만일 단순구연이 주를 이루는 경우 주거지 내부에서 문양을 지닌 토기편이 후대 유실이나 결실 등의 원인으로 인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4기에 대한 구분은 문양 이외의 다양한 유물이 포함되어야 할 듯합니다. 혹,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다른 유물 형식과의 공반이나 탄소연대 등의 증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구체적 편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문양의 경우 단사선문에서 격자문, X자문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시는데, 발표자께서도 인정하시듯이 중복사례가 너무 적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의 근거로 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차라리 이중구연의 형태를 더욱 세분해서 접근하는 것은 어떤지요?

3. 상기 질의에 덧붙여 언급합니다. 구연부의 형태와 문양간의 결합양상을 살펴보는데 있어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폭이 좁은 이중구연 A를 이중구연 B와 같이 포함하여 살펴보시고 있는데(20페이지), 전자의 구연형태가 이르고 후자의 구연형태가 형식학적으로 늦다면 굳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분리하여 편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묶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량이 적다면 이른 시기에 적은 수의 주거지와 취락이 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공민규 선생님께서는 이중구연의 폭이 좁은 것을 이른 시기로 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물론 취락유형의 차이로 볼 여지도 있지만 적은 수의 양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4. 〈표 9〉를 보면 단사선과 구연부 형태는 뒤 시기로 가면서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인데, 만일 이를 다시 배열해 보면 단순구연에서 퇴화이중구연으로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견해와는 전혀 다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문양과 구연형태의 결합이 시간적 흐름을 잘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5. 〈표 11〉에서 언급하신 공반유물의 점 數가 큰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발생순서배열을 하시려고 한 것인지 단순히 유물 점 수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6. 선생님 발표문에서 특징적인 편년유물로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많지 않았던 방추차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3개의 형식으로 구분하여 변화의 흐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데, 형식이 다른 예의 중복관계가 보인다는 점은 있겠지만, 주거 내 편년의 기준으로 삼을 만큼 많은 수량을 보이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도면 3을 보면 1기의 유적에서도 A형과 C형이 모두 확인되고 있어 편년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오히려 입지에 따른 생계경제 방식의 변화에 의해 만들어진 유물로 볼 여지는 없는지요?

〈공민규 선생님〉

1. 공민규 선생님께서는 미사리유형을 편년하면서 3단계로 구분하고 계시는데, 문양의 형태만을 가지고 변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른 단계와 늦은 단계에도 폭이 좁은 이중구연이 나타나고 있어 다소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지의 중복이라든가, 속성배열법상의 장기문양과 단기문양의 동시 존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좁은 이중구연에서 넓은 이중구연으로의 변화상과는 배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미사리유형만의 특징으로 보시는지, 가락동유형에서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양 이외에 토기의 기종이나 기형적인 면에서 편년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가락동계 이중구연과 미사리계 이중구연의 특징이 언급되어 있지만 명확한 특징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구체적인 특징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리유형에서 확인되는 가락동계 이중구연토기를 구릉과 충적지 취락간의 연결고리로 보시고자 하는데, 혹시 이러한 문양속성이 미사리식 토기에서 가락동식 토기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시는지요?

3. 대평리유적 등의 주거지 중복상을 언급하시면서 기존의 주거 변화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시는데, 그렇다면 편년에서 주거 형태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가락동유형에서는 주거 구조의 큰 틀에서의 변화를 상정하고 계시는데, 혹시 가락동유형의 토기문양을 속성배열하면 미사리유형과 동일하게 주거형태 변화상이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4. '비가락동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혹시 역삼동 또는 흔암리유형 취락의 유구 유물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예를 들은 관저동 9호 주거지의 경우 주거 형태가 가락동식이어서 역삼동식 주거 구조와는 판이한데, 혹시 송국리문화와의 접촉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5. 가락동유형의 빠른 단계에 미사리식 토기의 일부로 보이는 절상돌대문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혹시 미사리유형의 후행하는 단계로 보시는 건지, 계통을 달리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문양의 요소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6.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은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더라도 대체적으로 Ⅰ~Ⅲ단계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미사리유형 Ⅲ단계 이후에는 상기 두 유형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가는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즉 미사리유형이 Ⅲ단계 이후 사라진 원인이 가락동유형에 흡수되어 편입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소멸되어 사라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7. 각 유형의 단계별 연대는 어떻게 상정하고 계시는지요? 탄소연대가 발표자의 연대관과 다소 어긋난다는 점을 의식하여서인지 쉽게 결정짓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구-남강-동남해안지역 조·전기 편년 및 병행관계 토론문

천 선 행
전북대학교 BK21

토론자가 요청받은 부분은 대구-남강-동남해안지역의 조전기 편년 특히 세지역간 병행관계에 관해 세밀하게 토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세 분 발표내용이 서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개 지역별 편년에 대한 토론은 자중하고, 각각의 편년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간 병행관계표를 작성해 보았다(아래표).

대구-남강-동남해안지역 병행관계표

<table>
<tr><td rowspan="2"></td><td>시기</td><td colspan="3">김현식</td><td colspan="2">하진호</td><td>김병섭</td></tr>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호서지역</td><td rowspan="2">영남내륙</td><td rowspan="2">동남해안지역</td><td colspan="2">대구</td><td rowspan="2">남강</td></tr>
<tr><td>문양구성</td><td>절대연대</td></tr>
<tr><td>BP.3300</td><td>조기</td><td>가락동 I 단계</td><td colspan="2">돌대문토기, 상촌리식토기</td><td rowspan="2">전기 I 기</td><td>전기 I 기</td><td>조기:돌대문/이중구연/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돌류문</td></tr>
<tr><td>BP.3000</td><td rowspan="3">전기</td><td>가락동II단계</td><td>전기 I 단계</td><td rowspan="2"></td><td>전기 II 기</td><td rowspan="3">전기:유사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돌류문/공렬문의 복합에서 돌류문/구순각목 중심으로 변화

(하촌리기)</td></tr>
<tr><td>BP.2900</td><td>가락동III단계</td><td>전기 II 단계</td><td>전기 I 단계</td><td>전기 II 기
전기III기</td><td rowspan="2">전기III기
전기IV기</td></tr>
<tr><td>BP.2700</td><td rowspan="4">후기</td><td rowspan="3">송국리유형</td><td>전기III단계</td><td>전기 II 단계</td><td>전기IV기</td></tr>
<tr><td>BP.2500</td><td></td><td>후기 I 단계</td><td rowspan="3">후기</td><td rowspan="3">후기</td></tr>
<tr><td></td><td></td><td>후기 II 단계</td></tr>
<tr><td></td><td></td><td></td><td>후기III단계</td></tr>
</table>

조전기 편년에 대하여 대구지역의 경우 4단계, 동남해안지역의 경우 3단계로 편년하였고, 남강유역은 세분편년보다 시기별 문양소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 분 발표자의 조전기 편년의 기준에 나타나는 상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해 보고자 한다.

1. 돌대문토기 존속시기 : 각 지역별 이른 단계로 돌대문이 확인되는 점은 공통되지만, 돌대문의 존재를 통해 조기로 파악하는 견해(김현식/김병섭(전기고단계까지 잔존가능))와 돌대문이 전기까지 잔존한다고 보는 견해(하진호)로 양분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조기설정문제와 결부되므로 돌대문의 시간성에 대한 연구자적 관점은 중요하다. 돌대문토기가 이르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공반하는 이중구연토기, 구순각목 등 전기 요소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들 요소를 조기로 파악하면 전기와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조기의 이중구연 등을 외래요소의 직접적 유입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돌대문-가락동식-흔암리식-역삼동식」의 변화상이 각광받고 있는 듯한데,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위의 토기문화가 모두 계통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위 토기문화가 전기에도 공존가능하다고 본다. 발표자 분들에게 돌대문토기의 변화상과 시간적 존속범위 특히 전기토기문화와 공존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되묻고 싶다.

2. 조기단계 이중구연토기의 성격 : 하진호의 경우 시지동1호 출토 이중구연토기를 상촌리식토기로 언급하면서 재지적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데, 그럼에도 이중구연 1문으로 포괄시키고 있다. 김병섭의 경우, 김현식과 유사하게 조기 이중구연은 가락동식과 구분되는 외래계로 파악하고 전기의 것은 유사이중구연으로 일괄한다. 최근 돌대문토기와 공반되는 이중구연으로 가락동식토기 범주에서 제외시켜 외래요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상기한 시기구분 문제와 결부된다. 그러나 조기와 전기의 (유사)이중구연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해진 바가 없는데, 양자의 구분기준을 어떻게 보는지 듣고 싶다. 그리고 가락동식토기의 출현도 기존 연구로 볼 때, 청천강유역 이중구연토기문화의 유입으로 보는데, 가락동식토기는 조기 이중구연토기에서 발전한 것인가? 전기이른단계에 새로이 청천강유역 토기문화의 유입으로 발전한 형태로 보는지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3. 이중구연단사선문의 존속기간 : 김현식의 편년표를 바탕으로 하진호의 편년을 대입해보면, 전기 편년기준이 문양구성을 볼 때, 김현식은 이중구연단사선문 유무를 기준으로 하고, 하진호와 김병섭은 이중구연단사선문의 세부속성 특히 이중구연부 접합형태를 기준으로 세분한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이중구연 형태는 물론 결합 혹은 공반유물상에서도 구순각목, 공렬문의 결합에 따라 단계 설정되어 있다. 동남해안지역의 경우 이중구연형태, 공반문양(이중구연단사선+문양)에서 전기 I 단계가 더욱 세분될 여지가 없는가? 그리고 남강유역의 경우 전기세분은 어떻게 가능하고 기준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4. 경사편년의 설정가능성 : 김현식은 동남해안지역 전기 I 단계-영남내륙지역 전기2단계-호서지역 가락동3단계의 병행관계를 설정하였다. 동남해안지역 전기 I 단계는 이중구연단사선문을 중심으로 구순각목, 공렬이 조합된다. 이는 〈표5〉로 보아 영남내륙지역 전기1단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나아가서 가락동2단계(가락동1단계까지도 가능)와 공통되는데, 굳이 호서지역-영남내륙-동남해안지역으로의 문화 파급경로에 따른 경사편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한다.

토론자 의견으로는 경사편년을 설정하게 되면, 동남해안지역 조기의 시간폭이 길어지는데, 실제 고고자료의 양적 측면에서는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뿐만아니라, 김현식이 제시한 영남내륙 전기 I 단계에 해당하는 유적이 하진호의 대구지역편년에서 전기 II

기와 Ⅲ기에 걸쳐 확인되며, 절대연대상에서도 영남내륙 전기Ⅰ단계와 하진호의 대구지역 전기Ⅱ기가 병행하므로 경사편년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해 보인다.

5. 역삼동식토기의 출현 : 본 발표에서 하진호와 김현식은 동일하게 역삼동식이 흔암리식의 뒤를 이어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역삼동식토기가 전기이른단계부터 출현한다고 보는 견해와 대립하며 고고학계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호서지역, 대구지역과 같이 이중구연단사선문의 가락동식토기 전통이 강한지역에서는 역삼동식토기가 늦게 출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 지역을 벗어난 한반도의 광역적 병행관계구축이라는 과제에서는 역삼동식토기 시간성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비판된바 있는 가락동유형의 전통이 강한 지역권 문제, 절대연대, 잔존문제를 포괄하여 세 분 발표자가 생각하는 한반도 남부 지역별 역삼동식토기의 출현과 전개양상에 대한 입장차이를 분명히 밝혀주었으면 한다.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조기·전기의 편년」에 대한 토론문

하진호선생님은 돌대문토기 이중구연1문과 주로 공반하고, 역삼동식토기는 이중구연3문과 공반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대구지역 편년을 작성하였고, 토론자도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다.다만, 전기 이른시기에 돌대문과 공반하는 이중구연토기들을 가락동식토기로 보아야 할지 혹은 상촌리식토기와 같은 재지 발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요소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구지역의 무문토기는 호서지역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문양 변화상도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는 유물 공반관계에 따라 역시 가락동-흔암리-역삼동식토기의 변화상을 지지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호서지역은 가락동유형이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그에 따라 역삼동식토기 요소 중에서 구순각목이 중심적으로 출현한다. 대구지역이 호서지역 영양이 강하다면,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가락동식토기 성격이 강한 지역에서 타문화와 요소(구순각목/공렬)가 늦게 나타난다고 하여 역삼동식토기의 출현이 늦다고 볼 수 있는가?

「남강유역 조기~전기의 편년」에 대한 토론문

김병섭선생님은 실질적 세부편년보다는 문양의 출현과 소멸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내용마지막표에 제시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기는 돌대문과 이중구연이 특징이며, 새로운 중국동북지방 주민이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전기는 재지적 성격으로 변화한 단계로, 유사이중구연+단사선, 돌류문+구순각목문, 돌류문, 구순각목이 중심을 이루는 단계로 보는 것이다.

세부편년이 제시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본 발표의 목적이 세분편년과 병행관계인 만큼, 전기를 어떻게 세분하고 있으며 세분기준이 무엇인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린다.

조기 내용을 보면, 돌대문, 이중구연이 포함되고, 이중구연+단사선문까지 포함된다. 제시된 도면에서 돌대문과 이중구연을 거의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이중구연+단사선문으로 본 것들은 토론자 눈에 돌대문으로 파악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돌대문과 이중구연을 구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동남해안지역(경주-포항-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년」에 대한 토론문

김현식선생님의 논문은 복합문, 단독문, 석기 등의 공반관계를 통해 편년을 구축하지만, 그 중에서 복합문과 단독문의 조합이 편년 기준이 된다. 그 내용은 〈표2〉와 〈표3〉, 〈표6〉에 제시되어 있다. 발표자의 동남해안지역 편년관에 대한 논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동남해안지역 조전기 편년은 가락동식-흔암리식-역삼동식토기로 변화하고 각각 전기Ⅰ단계 , 전기Ⅱ단계, 후기Ⅰ단계 로 단계를 설정한다. 두 번째, 주변지역과의 병행관계에서 보면〈표6〉, 호서-대구-동남해안지역으로의 문화파급에 따라 경사편년을 설정한다. 세 번째, 돌대문토기는 전기문화와 계통성이 확인되지 않는 외래적 요소이므로 조기로 파악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제외하고, 첫 번째 논점에 대한 의문사항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전기Ⅰ단계 특징인 이중구연단사선문은 〈표2〉로 보아 복합문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만 보이는 유적은 경주갑산1호 뿐이고 이마저도 단독문인 구순각목과 공반한다. 한 예를 통해 이중구연단사선문만이 이르다고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기Ⅰ단계와 전기Ⅱ단계의

일부는 이중구연단사선문을 제외하고 여타 문양구성이 동일하다. 울산비석골1호나, 경주덕천 11호의 연대측정치도 전기 I 단계와 다르지 않다. 동남해안지역에서 복합문인 이중구연단사선문의 소멸과정이 중요하다고 동의하지만, 〈표2〉와 같이 전기 I 단계와 전기 II단계의 구분기준은 이중구연사선문요소의 유무로만 볼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역삼동식토기의 출현을 늦게 보는 대표적 연구자이고, 본고에서 그 논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있지만, 여기서는 편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표4〉에서 볼 때, 역삼동식토기는 구순각목공렬로 각 문양의 단독문 공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3〉에서 후기에 역삼동식토기와 검단리식토기가 공존한다고 하였지만, 후기에 구순각목공렬은 경주월산리(문)A7호뿐이고, 대부분 공렬과 구순각목의 단독문만 확인되므로, 역삼동식토기는 구순각목, 공렬의 공반 및 단독출토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가 말하는 역삼동식토기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표3〉혹은 〈표4〉의 어느 쪽이든 역삼동식토기 요소는 전기 I 단계부터 확인되는데, 이중구연단사선요소가 없는 것만을 역삼동식토기로 볼 수 있는가? 발표자가 기존에 언급하였듯, 돌대문에서 구순각목이 출현하고, 횡대구획거치문에 조합된 점열에서 공렬이 파생된다면, 역삼동식토기 요소는 결국 가락동식토기와 별개의 계통일 것이고, 서로 다른 계통이라면, 가락동식-흔암리식-역삼동식으로의 단선적 변화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에 대한 토론

김 규 정
전북문화재연구원

양영주 선생의 발표문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전기 무문토기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 발굴 조사된 자료까지 추가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문을 읽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과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지역구분에 있어 토론자도 발표자와 똑 같은 지역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 또한 지역구분이 완벽하다고 생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해안지역의 경우 북서부지역과 중서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역구분에 있어 좀더 신중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전기 무문토기 가운데 壺를 구연부와 동체부의 세부속성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였는데 II단계로 본 유물 가운데 석천리 옹관으로 사용된 3번과 4번은 오히려 기형으로 보아 III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혹시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호와 공반된 심발의 경우도 단계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심발에 대해서는 단계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단계구분이 있다면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표 5)와 관련하여 미사리유형을 조기 전반으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조기 후반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이 호남지역에서 확인된 예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락동유형을 I기와 II기로 구분하였는데 II기에 속하는 영등동 I-2호와 I-3호는 출토유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지의 특징에 있어 동시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최근에 김제 부거리, 상동동 등에서 전기 주거지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주거지 또한 장방형에 가락동식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북서부지역 가락동유형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동식토기와 함께 공반된 흔암리식토기는 익산 용기리, 완주 구암리, 전주 장동 등에서 확인되는데 이들 유물에 대해서 발표자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즉 가락동유형에 일부 토기 요소만 흔암리식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 또한 흔암리식으로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전기문화의 변천과정」에 대한 토론

김 규 정
전북문화재연구원

홍밝음 선생의 발표문은 잘 보았습니다.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관련 논문을 최근에 쓰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0년의 논고에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변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발표문을 읽고 몇 가지 의문점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발표문에 보면 순천 상사천유적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유적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상사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양상이 확인되어 "상사천 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한국 고고학계에서 전반적으로 유적명에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면 유적명을 행정구역명을 따라 순천 마륜유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2.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와 각목돌대문토기가 일정기간 병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혹시 전남지역에서 그런 유적이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충적지에 분포하고 있는 주거지의 경우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구가 거의 같은 Level상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주거지내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장방형 주거지에 설치된 노지의 경우 발표자는 토광형과 무시설식을 동일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 주거지를 조사하다 보면 토광형과 무시설식 노지는 차이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토광형과 무시설식은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표 2) 호남지역 전기 주거지 제원표에서 영광 군동을 영산강유역권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토론자는 영산강유역과 영광지역을 구분하였고, 영산강유역권도 상류의 경우 담양 태목리 유적을 통해 볼 때 섬진강 상류와 유사성이 있으며 섬진강 상류를 통하여 영산강 상류로 무문토기 문화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하류의 경우 가락동식 토기가 호남 북서부지역에서 서해안을 따라 함평지역에 먼저 유입되고 이후에 영상강 중상류로 확산된 것으로 보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광역편년을 향하여

배 진 성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남북한 병행관계 설정의 어려움】

※ 압록강~청천강유역의 서북지역과 두만강유역의 동북지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청동기시대 토기편년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곳이다. 동북아시아의 토기편년에서 압록강~두만강유역의 편년은 적극 이용되는 반면, 질적·양적으로 진척된 남한의 편년은 소외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체의 편년망 구축이 요망된다.

〈표 3〉 서북지역과 남한의 병행관계

압록강하류역	압록강중류역	청천강유역	남한
신암리3-1		당산상층	조기
신암리Ⅱ 古 / 新	심귀리·공귀리Ⅰ	세죽리Ⅱ1·구룡강Ⅰ	전기전반
신암리Ⅲ	심귀리·공귀리Ⅱ	세죽리Ⅱ2 / 구룡강Ⅱ1	전기후반
미송리Ⅱ1	⋮(?)	구룡강Ⅱ2	
미송리Ⅱ2	⋮(?)	세죽리Ⅱ3·구룡강Ⅲ	후기

〈표 4〉 두만강유역과 남한의 병행관계

시기 \ 지역		중류역(연길 포함)			標識	하류역	남한
		즐문토기 말기			뇌문	서포항IV1 서포항IV2	조기
부기		호곡Ⅰ	Ⅰ1 Ⅰ2				
前期	前半	앵가령상층 오동4호	홍성 3 4 5	新龍	무경식석촉 지두돌대	서포항Ⅴ 서포항Ⅵ	전기전반(전기)
	後半	호곡Ⅱ	오동 2호	郎家店	적색마연	서포항Ⅶ	전기후반(중기)
後期	前半	유정동1호	호곡Ⅲ 오동5호	(小營子) 新安閭	세장유경촉		후기
	後半	水北	호곡Ⅳ 강안리2·3	新光	파수		

※ 〈표 1〉과 〈표 2〉는 토론자가 제시한 바 있는 서북지역 및 동북지역 편년과 남한 편년의 병행관계 설정 안이다(裵眞晟 2009·2010).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시기명 삽입·點線·實線이다. 북한 자료에 근거한 편년에 남한의 시기명을 어떻게 대응시켜 삽입해야 할지도 쉽지 않지만, 편년표에 남한의 시기명을 넣고 난 후 북한 자료의 편년과 대응시켜 시기명 사이의 어느 부분에 선을 그어야 할지가 더 고민스러웠다. 위의 표에서 북한지역의 경우 시기명 혹은 문화층 사이에 실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서 자신하기 어려워 점선으로 처리된 곳도 있다. 하물며 남한의 시기명 사이에는 겨우 조기와 전기 중심으로 점선을 두었을 뿐 실선은 한 곳도 긋지 못하였다.

- 둘째, 시기가 내려올수록 병행관계 설정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른 시기일수록 돌대문나 이중구연 등 남북한 공통의 자료도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한의 조기는 신암리Ⅱ·세죽리Ⅱ1·호곡Ⅰ 등과 병행시키는데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기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다행히 횡대구획문토기가 출토되는 호서지역의 경우 요동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적 시야에서 대략적인 병행관계를 상정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직접적인 대비가 쉽지 않다. 만약 서북지역 전기의 표지토기인 미송리형토기의 분포권이 남한까지 내려왔다면 남북한을 포함한 편년망 설정에 좋은 실마리가 되지 않았을까. 남한 무문토기 연구자로서 아쉬울 따름이다.

- 셋째, 한반도의 가장 북쪽이면서 표준 유적이 밀집한 서북·동북지역에 비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자료의 질적·양적 제약이 많다. 두만강유역의 이남에서 주요 유적이라 할 만한 금야유적이 있는 동한만(원산만) 일대는 주로 늦은 시기가 중심이다. 그리고 대동강유역은 자료는 많지만 팽이형토기문화 자체가 지역적 한정성이 강하고, 가락동식토기의 계통론에서도 밀려난 현재 남한과의 대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질의1: 강화 삼거리를 비롯하여 중부지역의 연천 삼거리·화천 용암리유적 등에서 팽이형토기와 흡사한 것이 출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마침 팽이형토기문화에 대한 논고를 내기도 했던 영서지역 편년의 발표자에게 대동강유역과 영서지역(혹은 중부지역) 편년의 병행관계에 대한 의견 혹은 전망, 최근 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부탁드리고 싶다.

- 넷째, 북한측 도면의 정밀도나 유물의 실견 문제 등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한의 무문토기문화가 시간이 갈수록 지역색이 강화되는 점도 북한과의 병행관계 설정에 난관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영동지역 편년에서】

영동지역은 두만강유역과 자주 대비된다. 그러나 호곡Ⅰ이나 서포항Ⅴ 등이 영동지역의 조기 병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일 뿐, 그 이상의 진척은 사실상 미진하다. 조기의 경우에도 강릉 교동의 상한을 조기에 둘 때, 교동의 토기 가운데 호곡Ⅰ·서포항Ⅴ에 직접적으로 대비할 만한 것은 없다.

▷ 질의2: 영동지역의 조기와 전기 무문토기 가운데 두만강유역의 토기와 기형, 문양, 제작기법 등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최근 자료의 유무는 어떠한가.

【동남해안지역 편년에서】

"…남한 청동기시대 조기 문화는 서북한지방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직접전파로 출현한

것이다.”

▷ 질의3: 북한의 무문토기 편년에서는 ‘전기’·‘후기’와 같은 시기명보다는 ‘신암리II’·‘호곡I’처럼 주로 표준 유적이나 문화층으로 명명되어 왔다. 여기서 ‘서북한지방의 전기’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서북한의 전기는 조기를 전제로 한 전기인지 등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다면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시작에 있어 북한과 남한이 서로 시기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미까지 포함하는가.

한국청동기학회

회　　장 _ 안재호(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감　　사 _ 송만영(경기도박물관)
출판위원 _ 박양진(충남대학교 고고학과)
편집위원 _ 중　부 : 이형원(한신대박물관)
충청도 : 오규진(가경고고학연구소)
경상도 : 유병록(우리문화재연구원)
전라도 : 이종철(전북대학교 박물관)
제주도 : 김경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 _ 취 락 분 과 : 나건주(충청문화재연구원)
묘 제 분 과 : 김승근(동북아지석묘연구소)
생 업 분 과 : 허의행(한국고고환경연구소)
토 기 분 과 : 김병섭(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청동기분과 : 이청규(영남대학교)
석 기 분 과 : 황창한(울산문화재연구원)
지역편년분과 : 이형원(한신대학교 박물관)
정보위원 _ 중 부 지 역 : 강병학(중부고고학연구소)
영 남 지 역 : 송영진(경상대학교 박물관)
호 서 지 역 : 현대환(한국고고환경연구소)
호 남 지 역 :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총　　무 _ 박영구(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간　　사 _ 이은경(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 편년

인쇄 : 2012년 12월 4일
발행 : 2012년 12월 7일
편집/발행 : 한국청동기학회
인쇄 : 디자인세상(051-441-9454)

학회연락처
210-70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內
전화 (033) 640-2594　팩스 (033) 640-2593　http:// www. bronzeculture.or.kr

※ 이 책은 울산문화재연구원, 영남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전북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